

광주시의회·5개 구의회 지도부 민주 독식

원구성 결과 32명 중 평화당 소속 1명 뿐 지방자치 의회 비판·견제 기능 약화 우려

광주지역 광역·기초의회 원구성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에 이어 지방의회마저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지방자치의 중요한 축인 의회의 비판·견제 기능 약화도 우려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의 신입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는 모두 34명에 이른다. 이 중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2명은 인선이 완료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

장은 의회 파행으로 연기돼 각각 18일과 23일 선출한다.

선임이 완료된 32명 중 민주당이 31명에 이르고, 나머지 1명만 야당이 차지했다. 민주평화당 소속 5선의 홍기월 의원이 동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은 것이 전부다.

광역 23명, 5개 구의회 68명 등 전체 시·구의원 91명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은 14명이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이들은 대부분 자리를 맡지 못했다.

또한 시·구의회 6명의 의장 중 여성은 북구의회 고점례 의장이 유일하다. 서구의회

에서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모두 남성의원이 차지했다.

의회별로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에 김동찬, 1·2 부의장에 장재성·임미란 의원이 선출됐고, 행정자치위원장은 김익주, 환경복지위원장은 박미정, 교육문화위원장은 김학실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동구의회는 의장 박종균, 부의장 조승민, 운영위원장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 정미용, 사회도시위원장 전영원 의원으로 진용을 짰다. 서구의회는 강기석 의장에 김태영 부의장, 김영선 운영위원장,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 구도가 잡혔다. 남구의회는 조기주 의장에 박희을 부의장, 서민석 운영위원장,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 오영순 사회

건설위원장이 포진했다. 북구의회는 고점례 의장에 주순일 부의장까지 여성의원이 의장단에 장악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에 김건안, 행정자치위원장에 이정철, 경제복지위원장에 최용환, 도시보건위원장에 기대서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광산구의회는 배홍석 의장과 김은단 부의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장 공병철, 기획총무위원장 조영임, 산업도시위원장 강장원 의원이 상임위를 이끌게 됐다.

동구의회 홍기월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독점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주요 보직을 특정 당이 모두 차지하면 어떻게 지방행정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시민사회단체와 소통 나서

도시철도 2호선 등 현안 논의

광주시가 시민사회단체와의 전방위적 소통에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7일 오전 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영일 대표, 참여자치21 정재원 대표, 장세라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한지성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20개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가 참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만남의 장'을 열어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의 장은 이 시장이 시민사회단체 대표, 시민활동가와 격의 없이 만나 민선 7기 시장 방향과 제안사항 등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제안된 의견을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및 시민활동가들은 ▲도시철도 2호선 신중한 검토 ▲중앙공원 개발 면적 축소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광주전 주변 난개발 문제 ▲공항 이전 ▲도시공원 보전 등에 대한 의

견을 제시했다.

또 ▲민관 거버넌스 강화 ▲민주시민 교육 조례 제정 ▲버스완전공영제 검토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복지시설 공공서비스 지원 ▲선진지 종합계획 수립 ▲시민권익위원회 여성 참여비율 확대 등도 건의했다.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청년과의 간담회 ▲격무부서 순환보직 주기 조정 ▲청소년 정책에 대한 관심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이 꿈의 공원 조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여성 복합문화공간 마련 등도 논의됐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대표는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도 민선 7기가 잘 되도록 광주시와 협치하고 이에 못지않게 끊임없는 시장 감시와 견제, 비판으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현안 사업 추진에 있어 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리더십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오전 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의회 파행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아 시민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상징 생물 '깃대종' 지정

광주시는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고, 광주다움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생물을 '깃대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3차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과 식물 중에서 희귀성, 시민 친숙도, 지역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교수, 연유원, 환경단체 등 전문가 의견과 광주 에코포털(<https://eco.gwangju.go.kr>)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거쳐 깃대종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깃대종'은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지역 생태계 특징을 반영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생물을 선정하도록 제시하고 있

다.

광주 깃대종 선정은 특정 생물종의 환경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로의 가치를 높게 된다.

깃대종 후보군으로는 멸종위기종 중 광주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로 ▲동물은 담비, 삿, 하늘다람쥐, 팔색조 ▲식물은 가시연꽃, 노각나무, 자작나무, 회화나무를 선정했다.

시는 깃대종이 선정되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 생물다양성 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광주의 자연 환경이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릴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의회, 전국 첫 도정시책 요약집 발간 했는데...

민선 7기 아닌 6기 시책 담아 도정방침과 괴리...혼선 우려

전남도의회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참고서' 격인 상임위원회별 도정 주요시책 요약집을 발간했다. 전국 첫 사례다.

하지만 요약집이 새로 출범한 민선 7기 도정 주요시책이 아니라 민선 6기 시책을 요약한 것이어서 자칫 시책 변화에 따른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정책담당관실 입법연구팀 주관으로 2018년도 전남도 실·국 소

관 주요 시책을 의회 상임위별로 정리·요약한 '전남도 주요시책 요약집'을 펴냈다. 상임위원회 시책 소개와 함께 예산, 현황 통계, 사업추진 법적 근거 등이 담겼다.

요약집은 전남도의회 상임위 기준으로 분권해 모두 6권, 총 10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다.

최근 개원한 제11대 전남도의회는 전체 의원 58명 가운데 초선이 41명(70.7%)에 달해 이들이 신속하게 도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회 사무처가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 펴낸 것이다. 하지만 민선 6기 시책을 민선 7기가 출범한 뒤에 배포한 것이어서 주요 시책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선 6기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

하다보니 민선 7기 '김영록호'에서 바뀐 도정 목표와 방침·핵심 시책이 담기지 않았고, 기존 시책이 수정돼 추진되면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요약집 상당 부분이 실·국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관계자는 "제11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 입법연구팀 팀원들이 3개월간 자료 조사·분석을 통해 요약집을 만든 것"이라며 "올해 초 업무보고를 기초로 분석하다보니 민선 7기 전남도정 방침과 주요 공약 등은 빠져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구의회 임시회...본격 활동

광주 광산구의회(의장 배종석)가 민선 7기 광산구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전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39회 임시회에서는 광산구 각 부서별 주요 정책과 추진 방향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조례안 3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의 안건은 ▲광산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광산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광산구 광산구정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도 처리할 예정이다. /최승철 기자 srchoi@

전남도 "고수온 쇼크 막아라"

양식장 피해 예방 돌입

전남도가 해수온 상승에 대비해 일찌감치 양식장 피해 예방 태세에 들어갔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물과학원 발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달 말부터 8월 사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폭염이 지속해 연안 등에서 고수온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고수온 현상이 일찍 나타나고 해역 수온이 평년보다 0.5~1.5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최근 양식장별 생물 입식량을 조사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시·군에 현장 대

응반을 운영하고 양식장별 피해예방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식 어가에는 차광막 설치와 액화 산소를 공급하고 양식장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는 부담금의 60%를 지원한다. 고수온이 지속하면 양식 어패류는 쇼크,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질병 감염 증가, 산소 부족 등으로 대량 폐사할 수 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장은 "고수온 피해를 막으려면 먹이량을 조절하고 액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해상 가두리에서는 차광막 설치, 조류소통을 위한 산소 공급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옛. 밝은광주안과

밝은광주안과의 새 이름

신세계안과

SHINSEGAE

스마일 / 라식 / 라섹
노안 / 백내장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